

기도편지 48호

2012년 12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저희 가정과 사역위에 섬세하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기도와 정성어린 후원으로 함께 섬겨주신 동역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굴리스탄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사로 섬기는 락시미 자매가 11월 23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매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저희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자매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자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세례식에 참석했던 교사 까비따 자매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굴리스탄 커뮤니티 센터 졸업식이 12월 11일에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비자레스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사피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졸업생 자매들과 참석하는 자매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말입니다.

빛의 집 교회가 20주년 기념예배를 11월 25일에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비자레스 목사님과 레하나 사모님, 일리야스 아저씨와 사피아 목사님의 모습이 저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땡기열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레하나 사모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캠퍼스 사역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했던 종 형제가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일람 자매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할머니 그리고 온 가족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디뉴오 자매가 영어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화학을 가르치며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비제이 형제와 빈두 자매의 가정이 복음의 귀한 일군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산딕, 프리양카 부부와 모헨띠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인도 팀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태엽&오현주님의 파송교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임권동&박상옥님의 자녀 세현이의 대학입학과 진현이의 학업을 위해서, 최동식&이임복님이 사랑의 집 고아원 안에 새롭게 시작한 프레마 학교 사역을 위해서, 오릿사의 최종호&전은숙님은 팀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그리고 안식년 중에 있는 이대하&손윤희님의 자녀 빛나와 나리의 인도 현지의 기독교 기숙사 학교 입학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준섭이(고1)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1학기 학업을 잘 마쳤습니다. 새일이(중1)도 형과 같은 코다이카날 기숙사 학교에 보내려고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새일도 선교사 장학금을 받고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며 건강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 주셔서 외국어 대학에서 불어석사 1학기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업과 사역을 잘 병행하면서 최선을 대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 박숙경 씨가 몸이 지칠 때가 종종 있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센터에서 가까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동생 이윤정 집사는 계속 치유 중에 있습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ESF(기독교대학인회)에서 12명의 단기팀이 내년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인솔하는 하영호 목사님과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며 새해에는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인도에서 이주상, 박숙경 (준섭, 새일) 올림.

이주상, 박숙경 씨 인도 연락처: (집) 070-8281-7038

(핸드폰) 001-91-9849795893

E-mail: jsleesk@hanmail.net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93-681 예금주:GMS

